

“사회를 변화시키는 첫걸음, 성희롱/성폭력 폭력 예방 교육”

201620810

전자공학과

이 희 승

아주대 학생이라면 매년 한 번씩 수강해야 하는 성희롱/성폭력 폭력 예방 교육. 그러나 과연 정말 성실하게 교육을 수강한 학생은 몇이나 될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업이나 다양한 이유로 바빠서, 나 자신은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저 교육을 수강했다는 기록만을 위해 커두기만 할 것이다. 부끄럽지만 나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교육을 수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교육을 듣고 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성평등을 위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은 바로 위 교육을 수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교육이 생각보다 정말 유익하며 왜 우리 모두 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우선 교육은 폭력 예방 교육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굳이 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끌어내며 시작하는데 아마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일 것이라는 점에서 좋은 시작이었다. 이후 다양한 전문가 분들의 설명으로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아는데 왜 하지?’가 아니라 ‘나는 아는데 다르게 아는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관점이 다양하다는 것을 아는데 의의가 있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 오늘날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나는 아니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아는 사람도 있으므로 들어야 한다는 말이 많이 와 닿았다. 그리고 자극이 있어야 생각하게 된다는 설명이 기억에 남는데 우리가 평소에 겪지 않는 이상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깊게 생각해볼 일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교육이라는 기회를 통해 깊이 생각해볼 계기가 생긴 것 같다.

다음으로 학생 분들의 혐오를 담은 신조어들에 대한 빙고게임으로 영상이 진행되었다. 그저 단순하게 혐오를 담은 신조어를 쓰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일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내게 많은 생각이 들게 해주었다. 게임 참여자들의 말 중 혐오를 담은 신조어를 그냥 쓰면 안 된다는게 아니라 이 표현들이 누구를 향한 혐오를 내재한 건지, 그것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혐오를 재생산하는지 생각해보는게 중요하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 내가 욕설을 줄이게 된 계기도 욕설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며 어떠한 부분에 대한 모욕인지 등을 알게 되고 난 다음이었는데 혐오를 담은 신조어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그 신조어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본다면 과연 이 말을 사람들한테 하는게 괜찮은지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참여자는 급식충이라는 단어를 예시로 저러한 생각에 자연스럽게 젖어가고 있다는 말을 했었는데 듣고 나서 어느새 나도 저러한 생각에 젖어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분명 어린 학생들을 벌레라고 비난하기 위한 단어임에도 그 의미는 잊은채 재미있다고 조금씩 사용하는 횟수가 늘은 것 같다. 혐오 사회의 저자 카롤린 엠케는 혐오와 증오는 느닷없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양산된다고 한다. 즉 혐오와 증오는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저러한 신조어에 젖어서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훈련되고 사회에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양산되는 것이다. 성희롱/성폭력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게 아닌,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훈련하여 만들어진 사회적인 결과인 것이다. 온라인 성착취 사건

인 n번방 사건도 불법촬영물을 소위 야동이라 포장하여 소비하던 문화가 만들어 낸 것이며 사이버 범죄는 수사가 어렵고 해외라 불가능하다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도 사건을 발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n번방은 우리 사회의 그릇된 통념에서 자라났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릇된 통념이 있는지 성찰해볼 필요성이 있다. 관행이나 규범 등이 옳지 않으나 따르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영상에서 제시한 문제로 단체 채팅방 성희롱이 있었는데 반복되니깐 반복된다는 말이 기억에 남았다. 그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 묵인하고 방관하고 동조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폭력은 정말 어느날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그릇된 규범이 만들어낸 행위이다. 따라서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복되지 않으니까 반복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릇된 규범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성찰과 참여,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에서 성폭력을 당했지만 대응하기 위해 허를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되어버린 70세 할머니가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 나왔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회가 바뀌었는지 물으며 내용이 끝났었는데 이때 왜 이제 얘기했는지가 아닌, 왜 이제 와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말이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왜 그랬냐가 아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돌아보며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아닌데 가 아닌, 내가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라는 생각으로 개개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 보는 관점을 키워야만 한다.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나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내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렇듯 나 하나부터 그동안 돌아보고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성희롱과 성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력자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며 끝이 났다. 특히 조력자의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가장 최선인지에 대한 부분이 매우 유익했던 것 같다. 영상에서 폭력 예방 교육은 사회 문화들의 많은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현재의 문제의식을 투철하게 하고 변화를 위한 시민의식을 바꿔내기 위한 교육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나아가 이를 실행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나는 처음으로 성희롱/성폭력이라는 문제가 나와 관련이 없는 먼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얽혀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성희롱/성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법과 제도 그 이전에, 바로 우리 모두가 올바른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연대하고 행동하는 것임을 이번 교육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이전의 나와 같이 그동안 자신은 성희롱/성폭력은 관련이 없으니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왔다면 이번에 나의 소감문을 통해 교육을 수강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학우들 모두 알았으면 한다.

끝으로 전반적으로 교육 내용에 매우 만족하였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우선 첫째는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다는 점이다. 요즘은 유튜브에 1분 미만, 쇼츠 등이 인기가 있을 정도로 한국인의 스타일에 맞게 빠르고 간결한 영상 소비가 많은 추세이다. 관심사의 영상도 짧고 간결한 것을 추구하는 추세에 사람들의 시청을 독려해야 하는 폭력 예방 교육은 영상의 길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학우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쉽게 가볍게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구성한다면 교육 참여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첫 영상에서 호기심을 끄는 데만 성공한다면 몇 개로 나뉘져 구성되더라도 쉽게 다음 교육 영상도 시청할 것이다. 둘째는 홍보 및 이벤트 증대의 필요성이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이 폭력 예방 교육이 있는지도 모르고 꼭 해야 한다기에 기한이 다 되어 갈 쯤 쳐두기만 한다. 이런 측면에서 폭력 예방 교육 홍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영상 시청을 통한 퀴즈 이벤트 등을 도입한다면 교육 참여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